

소비주의(Post Covid 19 Consumerism)에 관한 연구¹⁾

양희석²⁾ 한국교통대 교수

국문초록

2020년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Covid 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게 되었다. Covid 19는 박쥐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전파된 것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Covid 19의 발생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근원적으로 자본주의의 환경 파괴가 만들어낸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생태계를 훼손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것이다. 200년 전 페스트와 달리 Covid 19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Covid 19는 인수공통감염병이므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로 전파해 오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설에는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사람들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바이러스와 접촉되었다는 것이다. 인류가 자연 환경을 파괴하여 동물의 서식 환경을 침범하였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익 논리에 근거해 개발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환경을 남획하였다. 더 나아가 자연적 생산을 벗어난 반자연적인 생산을 시도하였다. 인공적인 생산, 대량 기계농업에 의한 난개발을 하다 보니,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원적인 문제와 이익 논리가 작용한 것이며, 더 깊은 데는 인간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 즉, 탐욕적 소비자본주의가 오늘날 팬데믹의 근원적인 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자본주의의 이익 논리에 근거한 소비주의는 코로나 사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탐욕과 이익 논리에 근거한 소비주의는 달라져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탐욕적 소비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 주제어(Key Words) : Covid19, 인수공통감염병, 자본주의 시스템, 탐욕, Consumerism

1) 2020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2)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전공 교수

I. 서언

2020년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Covid 19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게 되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이전의 시대에도 몇 차례의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의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의 상황에 처해진 것은 금세기 들어 처음이라 할 수 있고, 정치, 경제, 학교, 심지어 교회 예배 등 사회의 전 부문의 활동을 금지해야 하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팬데믹에 이르게 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Corona Virus)로 인한 Covid 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Covid 19가 처음 발병된 것은 중국 우한(武漢, Wu-han)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발생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자연발생적이라 하는가 하면, 실험실에서 실험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Covid 19의 원 숙주가 박쥐라는 데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박쥐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전파된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Covid 19를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김용섭, 2020: 87).

Covid 19의 발생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근원적 원인이 있다. 바로 자본주의의 환경 파괴가 그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생태계를 함부로 건드렸다는 것이다(우석균 외 4인, 2020: 160). 200년 전 페스트와 달리 Covid 19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산물이다. 현재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아주 오지에 있는 병원체도 비록 멀리서이긴 하지만 자본에 영향을 받는다. 에볼라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황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 열병 등 많은 전염병이 오지에서 발병해 교외로, 지역의 중심지로 번졌고, 결국에는 교통망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Covid 19는 근원적으로 보면, 고도의 공장제 축산이 낳은 뜻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이익논리에 따라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였다. 오늘날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공업화된 농장으로 변모하였다. 선진국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기업들은 식료품 시장을 지배하려고 저개발국가의 토지와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우석균 외 4인, 2020: 155).

그 결과 오랜 기간 익숙한 삼림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던 여러 병원체가 풀려나와 인간에게 전염되었고, 전 세계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거대 공장식 농업이 자본의 필요에 따라 조직되고 자연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병원체가 위험성과 전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여 치명적 질병이 배양되는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Covid 19는 식재료에 대한 규제 완화, 위생, 보건 시설 미비, 유전자 조작 농산물, 부적절한 사료를 통한 육류 생산 등의 요인들이

결합하여 발생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Covid 19는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농업 기업들과 그런 사회적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Covid 19가 위험한 감염병으로 대유행하게 된 것은 자본이 농업과 자연을 상대로 벌인 이윤 추구 행위, 이미 취약했던 자본주의의 기존 상태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코로나 19 사태가 보여 준 진실은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가 엄청나게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한 식량 생산 체계는 전 인류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무분별한 과소비를 조장하여 지구 환경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량 생산에 혈안이 된 공장의 공해와 자동차, 가정 그리고 가축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로 인해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우리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의 소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지구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소비의 문제는 지구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임성빈, 2008).

세계적 차원에서 소비의 양극화는 사회적 비극을 양산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소비주의가 세계의 가장 큰 윤리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인 것이다. 소비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비 양극화와 절대빈곤 같은 사회악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막화와 생물학적 종의 감소 등 생태악이 자연과 인류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지만 정신적 빈곤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서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강성영, 2007).

자본주의의 이익 논리에 근거한 소비주의는 코로나 사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탐욕과 이익 논리에 근거한 소비주의는 달라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주의(Post Covid 19 Consumerism)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자 한다. 먼저 Covid 19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제 견해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Covid 19의 발생에 대한 제 견해

Covid 19는 인수공통감염병이므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로 전파해 오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설에는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사람들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바이러스와 접촉되었다는 것이다. 인류가 동물의 서식 환경을 침범한 것은 자연환경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자연 환경의

파괴는 자본주의의 이익 논리에 근거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의 남획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연적 생산을 벗어난 반자연적인 생산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인공적인 생산, 대량 기계농업에 의한 난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원적인 문제와 이익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으며, 더 깊은 데는 인간의 탐욕이 있다. 즉, 탐욕적 소비자본주의가 오늘날 팬데믹의 근원적인 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야생동물의 식용화 문제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가금류가 아니라 뱀, 사향고양이, 독수리, 박쥐 등 야생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식용화하는 과정에서 도축할 때 그런 동물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 갔다는 것이다.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다. 야생동물을 특이하게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의 식성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허술한 것도 문제다. 야생동물은 식용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 성경에서도 야생동물을 먹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여 식용을 금지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인간들이 어렵게 밝힌 인수공통감염병의 동물 숙주들이 죽집게처럼 나온다. 낙타(메르스), 돼지(돼지열병), 물수리(독감), 갈매기(독감), 박쥐(코로나), 쥐(페스트), 뱀(코로나), 사반(오리너구리, 코로나), 도마뱀류(코로나). 레위기에서 식용을 금한 동물들의 신학적, 의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경고와 해답을 적어 놓은 것일 수도 있다(안명준 외 17. 2020: 63, 64). 이와 같은 것들을 먹지 말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데서 Covid 19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데 대한 응당한 징벌일 것이다(안명준 외 17. 2020: 46).

둘째, 야생동물이 식용화되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그들이 서식하는 환경을 침범하게 되고, 그들과 접촉이 잦아지면서 자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전염되고, 면역되지 않은 인간의 체내에 바이러스가 질병을 유발하게 된 것이다. 과도한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과 자연환경을 난개발하다 보니,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점차 소멸되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인해 그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류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환경적 구조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의 보호가 없다면, 이런 구조적 상황은 코로나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말 것이다.

셋째, 인류는 자연적 생산이 아닌 반자연적이고 인공적인 생산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즉, 자연농법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위해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농법을 시도했다. 이것은 결국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대량 생산에 의한 농축산을 하게 되면, 결국 유전자 조작, 기계식 부화와 목축 등이 성행하게 되고, 면역력이 약한 동물들은 각종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을 먹는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사람은 동물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서 인류는 결국 스스로 바이러스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셈이다.

넷째, 결국 오늘날 인류를 팬데믹의 지경으로 몰아 넣은 데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원적 한계, 그리고 더 깊은 데는 인간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탐욕적 소비주의가 오늘날 팬데믹의 근원적인 뿌리라 할 수 있겠다.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특이한 것을 먹고, 좀 더 많은 생산과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오늘날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것이다. Covid 19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탐심을 금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될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인류는 근원적 타락의 본성인 탐욕에 사로잡혀 팬데믹에 이른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야고보서 1:15)는 말씀은 오늘날 인류가 가야 할 재앙의 길을 예시해 주고 있는 듯하다.

III. Post Covid 19 Consumerism의 향방

대부분 고난의 문제를 도덕적 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고난은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이 연결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각종 야생동물과 가축을 무분별하게 섭식함으로써 그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어 Covid 19가 발병되고, 급기야 팬데믹을 겪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페스트처럼 동물에서 시작해 사람에게 확산된 것으로 본다. 바이러스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로 건너뛰었다. 일차적으로 Covid 19는 깨어진 자연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인간의 탐욕과 자연적인 악의 결합에 의해 유발되고 확산된 것이다(Lennox, 2020: 21).

따라서, 최근 발생한 몇 가지의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생활환경의 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의 의료는 미시적 접근에서 거시적 접근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하는데,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Covid 19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경제, 교육, 교통, 환경의 영향까지 고려한 거시적 해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홍윤철, 2020: 96).

1. 자연환경의 보호와 인수 공존의 모색

(1) 인수공통감염병의 발병과 확산

20세기 동안 인류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해 왔고, 20세기 후반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모두가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21세기인 지금도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불편을 겪을 일은 앞으로 더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노령, 장애, 빈곤을 가진 사회적 약자에겐 더 취약한 상황이 될 것이다(김용섭, 2020: 99). 아직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치명적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이 걸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 팬데믹을 맞게 된 것이다.

인류가 겪은 80년간 유행한 전염병들은 거의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그것의 대부분이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인류가 했던 생태계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도시화, 세계화로 점점 많은 개발이 이뤄지며 생태계가 파괴되자, 서식지가 줄어들고 동물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 세계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가뭄, 수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야생동물들의 공간은 축소되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 이들을 더욱 갈 곳 없이 만들었다.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인간과 접촉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최강석, 2020: 70-75).

당연히 야생동물들을 숙주로 삼던 바이러스도 새로운 숙주를 찾던지 멸종하던지 해야 하는데, 대량 사육되고 있는 가축, 대도시의 밀집된 인간은 이들에게 최적의 서식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동물의 몸에 숨어 명맥을 유지하던 바이러스가 가끔 인간들을 공격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이 발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수공통감염병은 과거에 비해 늘고 있고, 그것의 확산은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2) 동물 생명의 존중

동물들의 감염병 창궐은 인간이 동물들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해 야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의 공장식 축산은 동물들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사육방식이다. 동물들이 병에 취약하게 되어 그 병이 인간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같이 작금의 인수공통감염병의 창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바른 관계의 파괴에서 야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

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동물보호 정신을 다시 새겨 인간과 동물의 대결 관계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안명준 외 17. 2020: 49).

레위기의 말씀은 노아 홍수 이전의 채식과 홍수 후의 육식에 대해 중간에서 허용적인 입장을 취한다(안명준 외 17. 2020: 46). 동물의 고기를 먹기는 하되 식육을 억제하고 그들의 생명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평화스럽게 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세 오경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상호 의존과 함께 동일한 이해관계에 놓여있음을 강조한다. 동물들에게도 나름의 권리가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최근 동물보호론자들은 인권과 함께 동물권도 같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인간의 입장에서만 동물을 보지 않고, 동물복지의 측면에서 그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길러야 한다. 동물을 무한한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물들에 대해 보다 애정을 갖고 대해야 할 것이다. 동물들과 공생적 관계를 견지해나간다면, 인수통감염병의 발병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인수공통감염병의 발병을 막기 위해 몇가지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안명준 외 17. 2020: 49)

1) 인구의 증가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양자 사이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 간다. 동물들의 주거 권리 보호에 대한 생각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아울러 우리는 야생동물들과의 무분별한 접촉을 삼가야 한다.

3) 일부 국가에서는 대기근 등 여러 이유로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있다고 한다. 해당 국가의 정부가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 및 규제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가축전염병관리법 및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더 나아가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사육, 곧 공장식 축산을 지양하고 가능한 방목형 축산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밀도살에 대한 통제도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불법 사냥과 더불어 투우, 투계, 투견 등 생명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 반하는 행위들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6) 동물보호 달걀과 같은 정의로운 친환경 식품의 소비를 통해 공장식 영농의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

7) 동물의 유전자 조작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류에 어떤 재앙이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8) 특히 교회는 동물보호를 위한 신학적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9)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체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다. 생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 강화하여, 오늘날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생하며 행복한 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의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성경의 동물보호 정신이 요구된다. 또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파멸을 맞지 않으려면 야생동물 금지법을 강화하고,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 야생동물의 식용 반대와 금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안명준 외 17. 2020: 44-47).

2. 기독교 소비주의의 전개

(1) 자본주의 시스템의 개선

Covid 19를 발병시킨 자연환경의 훼손은 자본주의의 이익 논리에 의한 것이다(우석균 외 4인. 2020: 155). Covid 19의 사태가 보여 준 진실은 이윤 논리가 엄청나게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생태계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 바로 Covid 19의 발병의 근원적 원인인 것이다. 지금의 Covid 19로 인한 팬데믹은 어떤 정치·경제적 충격 탓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자본이 농업과 자연을 상대로 벌인 이윤 추구 행위, 이미 취약했던 자본주의의 기존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Baldwin. R. 2020: 44).

이번의 Covid 19의 발병에서와 같이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제기되는 진정한 위험은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50여년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집약화된 산업 관행 때문에 치명적인 병원체가 번식되고 있다. 여러 병원체들이 삽시간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원인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식량 생산, 다국적 기업의 수익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바이러스가 갈수록 위험해지는 이유는 공업화된 농업 및 축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코로나 19는 십중팔구 고도의 공장제 축산이 낳은 뜻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우석균 외 4인. 2020: 105).

이런 감염병 유행의 패턴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낳은 결과다(안명준 외 17. 2020: 36). 현재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농업 기업들은 식료품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오늘날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공업화된 농장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저개발국가의 토지와 자원을 약탈하고, 산림을 훼손하다 보니, 결국 오랜 기간 서식해 오던 환경으로부터 여러 새로운 병원체가 풀려나와 인간에게로 전염되고, 급기야는 전 세계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신종바이러스 출현을 억제하려면 식량 생산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산림을 파괴하고 토양에서 천연 영양소를 침출시키는 공업화된 농업과 공장형 농장을 철폐하고 계획적이고 집산화된 안정된 인도적 농축산업, 지속가능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농축산업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려면 농촌의 필요를 우선에 두는 방식으로 식량 생산을 재편해야 한다. 또 식량을 길러 내는 환경과 농민을 보호할 생태적 농법이 필요하다. 농업을 자본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공공 부문을 강화하면 환경 파괴와 통제 불가능한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을 추구해 온 자본주의적 식량 생산 체계는 전 인류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Covid Virus와 같은 위험한 신종바이러스 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농업을 자본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공공 부문을 강화하여 환경 파괴를 통제해야 한다. 또한 식량 생산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공공의 방식에 의한 식량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올바른 생산과 유통이 결합 되어야 한다. 생태적 농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을 보조해 주고, 구매를 장려해야 한다.

(2) 인간 탐욕의 제거

산업화한 20세기를 지나 세계화와 함께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인류는 전 시대보다 더한 탐욕으로 돌아갔다. 탐욕은 단순히 필요와 욕심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으로 이 시대에 모든 악을 뛰어넘어 최고의 악덕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무절제한 욕심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윤리적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탐욕의 의미가 고대 후기부터 변화되어 왔다. 고대 후기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 즉 다른 모든 악덕을 자라게 하는 근원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내린 정의에 근거한다. 중세 초기엔 탐욕 대신 교만이 모든 악의 기원으로 대두되었다. 탐욕을 악의 뿌리라고 한 것이 하나님만큼 소유하려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하나님처럼 존재하려 한다는 점에서 악의 시작인 것이다(Grun. A. 2019).

탐욕은 주요 악덕 가운데 가장 ‘경제적인’ 악덕에 해당한다. 경제적 환경에서 탐욕 만큼 ‘이성의 타락’을 보여 주는 예도 드물다. 탐욕기는 소유욕을 다스릴 줄 모르고, 생리적 욕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탐욕이 충동질하는 것을 구매하게 된다. 따라서 탐욕가가 부를 독점하면 경제적 흐름이 막히고, 생산 활동마저 힘들어지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열정 깊은 곳에 난폭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숨겨두고 있다.

인간의 탐욕이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이익 추구의 논리로 농업의 산업화, 공장형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했다. 그 결과, 인수공통감염병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안명준 외 17, 2020: 67). 오늘날 인류가 인수공통감염병인 Covid 19와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은 인류의 과도한 탐욕적 쟁취와 탐닉으로 인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비윤리적 과학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올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금세기 최대의 세계적 팬데믹인 Covid 19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채찍이 아닐까 여겨진다(박경수 외 3인, 2020: 82).

“우리가 어떻게 해야 파괴적인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무엇이 탐욕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것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가?” 탐욕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물음은 평정이나 내적 자유에 대한 갈망과 연관이 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안하고 자기 안에 갇혀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평정에 이르지 못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평정에 이르기를 갈망하지만 좀처럼 얻지 못한다.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인간이 가까스로 평정에 이르더라도 또 다시 탐욕의 굴레로 인해 욕심에 사로 잡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 자유와 정반대되는 현상을 체험한다. 인간의 탐욕을 어떤 물질이나 명성으로 채운다할지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세속적인 것을 끊임없이 갈구한 나머지 결국 탐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인간은 탐욕을 제거하고,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황을호, 2020: 44).

IV. 결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의 재앙, 팬데믹은 근원적으로 종식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인간이 변해야 한다. 탐욕으로부터 연유된 소비자본주의의 근원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대량 생산하고, 자연을 난개발하고, 이익을 위해 기계 농업을 취하는 이 모든 탐욕적 소비주의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Covid 19는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단절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구의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이 되려고 한다. 우리는 세입자와 청지기일 뿐이고 그것도 결함이 많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지구에 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과 심지어 타인의 삶까지 영망으로 만들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낙원이 있을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생각할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구에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빠르게 부수고 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손상된 세계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에서 날뛰기 전에는 이 현실이 가려져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삶과 죽음에 관한 큰 질문을 외면할 수 없다(Lennox. 2020: 67)

우리가 언제까지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며 살 순 없다. Covid 19로 경제활동이 멈추며 재정적 타격이 심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지만, 한편 지구와 인간의 일상에 시작된 리셋은 창조의 작은 원형으로의 짧은 회귀라는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창조 원형의 회복에서 생활과 삶의 진동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전 지구적 사역의 변화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가정의 리셋과 회복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명으로 알고 도전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최현식. 2020: 48).

포스트 코로나 소비주의(Post Covid 19 Consumerism)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높아진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동물은 자연환경으로, 인간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식용 동물만 먹고, 비정상적인 야생동물에 대한 탐욕적 섭취를 금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대한 소비 생산이 아닌 적정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 탐욕적 소비주의로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비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소비주의(Post Covid 19 Consumerism)의 방향이라 하겠다.

Covid 19는 탐욕적 비이성적인 인간에 대한 경종이 아닐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새겨 보면서 우리들의 삶, 정치, 경제, 교육,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등 전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 19) 시대에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탐욕과 욕심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파멸의 길로 치달을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다.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돈과 이윤이라는 또 다른 해결책에 중독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다. 재물에 대한 갈망은 결국 우상이 된다. 그 우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삶의 만족과 도움을 구하게 된다(Piper. 2020: 99).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경건한 삶을 강조한다. 경건의 실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개혁주의 교회는 16세기 이래로 오늘날 까지 이 경건의 실천을 중시해 왔다. 그것은 그 시작부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 19)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불의한 것들

로부터 구속받아 정결해진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속적 이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Wright N.T. 2020: 45).

<참고문헌>

- 김용섭(2020). 『언컨택트』. 서울: 퍼블리온.
- 김석현 외 8인(2020). 『코로나19, 동향과 전망』. 서울: 지식공작소.
- 박경수 외 3인(2020). 『재난과 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안명준 외 17(2020).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다함.
- 우석균 외 4인(2020).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서울: 책갈피.
- 임성빈 외 7인(2008).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 서울: 예영.
- 최강석(2020). 『바이러스쇼크』.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최현식(2020).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 황을호(2020). 『COVID-19 대유행병과 기독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 홍윤철(2020). 『팬데믹의 주범은 누구인가?』. 서울: 포르체.
- 강성영(2007), “소비사회의 인간 이해: ‘광고’를 통해 본 욕구와 한계의 변증법.” 신학논총. 138. 203-224.
- Grun. A. GIER. 황미하 역(2019). 『탐욕』. 서울: 바오로딸.
- Baldwin. R. and Beatrice Weder di Mauro(2020).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매경출판(2020).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전쟁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뉴노멀 경제학』.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Campbell. C. (1987). The Romantic Ethic and the Spirit of Modern Consumerism. 박형신 외 1인 역(2010). 『낭만주의 윤리와 근대 소비주의 정신』. 서울: 나남.
- Bocock. J. CONSUMPTION. 양건열 역(2003). 『소비: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서울: 시공사.
- Lennox. J.C.(2020). Where is God in a Corona Virus World? 홍병룡 역(2020).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서울: 아바서원.
- Piper. J. (2020). Corona Virus and Christ. 조계광 역(2020).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서울: 개혁된 실천사.
- Wright N.T.(2020). God and the Pandemic. 이지혜 역(2020). 『하나님과 팬데믹』. 서울: 비아토르.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포스트 코로나 소비주의 (Post Covid 19 Consumerism)에 관한 연구	발표자	양희석
		논찬자 (소속)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원)

먼저 논찬자로 초대해주신 기독교학문연구회에 감사드리며, 현재 진행형인 Covid19 시대와 그 이후의 지평을 논해주신 시의 적절한 주제를 발표해 주신 양희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자는 Covid19의 발생원으로 야생동물의 식용화, 자연환경의 파괴, 자연에 반한 생산, 탐욕적 소비주의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에 대한 관리와 보존이 아니라, 착취를 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환경의 보호와 인수 공존의 모색을 위한 동물보호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현실 법제도인 가축전염병관리법 및 동물보호법을 강화를 제시합니다. 또한 자본주의적 식량 생산 체계에서 자연친화적인 식량 생산 체계와 공공의 방식에 의한 식량 공급 체계를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탐욕을 직접 다룹니다.

이 지점이 이 논문이 갖는 특별한 지점입니다. 신학자 아우어(Alfons Auer)에 의하면 오늘 날 생태학적 재난의 원인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신 태도에 있습니다. 근대 이후 인간의 합리성은 합목적성과 효용성 및 이용가치에 함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도 단지 착취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발표자는 인간의 정신 태도의 근원 문제로 탐욕으로 포착한 것 같습니다. 탐욕은 불안한 자기 존재의 소비이며, 소비를 통한 자기 결핍의 충족을 추구하는 행위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비를 통해 존재하는 자는 결코 마음의 평정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적인 자유가 없는 자는 외적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단지 끝없는 소비와 소비의 쾌락에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 실존과 삶의 증명은 카드명세서이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탐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발표자는 바울과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해 따라 “자족할 줄 아는 경건한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발표자의 이 주장에 따르면 경건한 삶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자기수양적인 단독자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타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깃든 삶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배제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 속에 이미 이웃과 타자인 피조세계를 사랑하는 차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비의 윤리는 단순히 절약하고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이웃사랑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려에 기반한 돈의 선한 사용입니다. 소비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자기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타자를 사랑하는 부분이 포함한 사랑의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자신을 창조세계의 한 피조물로 여기는 창조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표현에 따라 이 세계관은 바로 “만물에게로 확대된 사랑의 윤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비와 욕망을

연결하고 극복을 제시한 이 논문이 지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드는 의문을 드림으로써 이 논찬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개혁과전통의 경건한 전통을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소비생활의 대안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과전통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주장하듯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폐해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개혁과의 자기 반성 역시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둘째, 야생동물의 섭취가 코로나 전염병의 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섭취의 자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더 큰 틀에서 보면 기후위기 역시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대량의 기업적 축산산업을 위한 화석연료의 연소 등도 그 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육식위주로 개편되는 현대의 식생활 문제 개선과 기후위기 역시 필요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소비지출은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음식산업의 증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식구(食口)라는 말이 있듯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음식의 섭취가 아니라 서로의 인격적 교제의 장입니다.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에는 인간의 외로움의 존재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비는 바로 이 외로운 이들과 비대면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자원이 제한된 계층, 즉 빈곤계층 등을 위한 소비나 그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화된 소비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귀한 발표를 해주신 양희석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논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